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역의지에 미치는 영향 -룸살롱과 바 여성종업원 태도 비교조사-

Korean Hostess' Attitudes toward Death and its Effects on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Comparative study of Korean Hostess Working at the Room Salon and Bar-

김유리*, 한흥식**, 제민지*, 천경주*, 장철훈***, 김성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단검사의학교실***

Yoo-Ri Kim(yoori84@hanmail.net)*, Heung-Sik Han(hans@pusan.ac.kr)**,

Min-Ji Je(99minji12@naver.com)*, Kyung-Ju Chun(chunkyung-ju@hanmail.net)*,

Chulhun L. Chang(cchl@pusan.ac.kr)***, Sung-Soo Kim(tigerkss@pnu.edu)*

요약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소재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을 대상으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관련 요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방법: 120명의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총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죽음해방인식,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공포,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역의지로 구분된다.

결과: 룸살롱 여성종업원들은 '월수입 만족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자살충동억제역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룸살롱 여성들의 '자살충동억제역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월수입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 여성종업원들의 경우 '죽음해방인식' 요인만이 '자살충동억제역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들의 경우 '월수입 만족도'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이 가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게끔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중심어 :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 룸살롱과 바 | 죽음에 대한 태도 | 자살생각 | 자살충동억제역의지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death among Korean hostess (room salon/bar) in Busan and their suicide-related factors.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120 Korean hostess. The questionnaires consist of 7 major concepts: death as liberation, death as natural phenomenon, fear of death, avoidance of thought about death, fear for the impact of death on family, frequency of thought of death,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Results: Interestingly, satisfaction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with their monthly incom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frequency of thought of death and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 Moreover, in term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fear for the impact of death on family,' and 'satisfaction with their monthly incom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However, for hostess working at bars, 'death as liberation' was found to be the only one factor showing significant effect on 'their capacities to resist suicidal impulses'.

Conclusion: For hostess working in room salons, their perceived monetary reward seems to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death and suicide-related thoughts. Understanding a person's attitudes toward death can be another way to help people in a difficult situation to prevent them from carrying out the worst.

■ keyword : | Korean Hostess | Room Salon and Bar | Attitude toward Death | Suicidal Ideation | Capacity to Resist Suicidal Impulses |

I. 서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국민 중 14,42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살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8명, 30대 여성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인 12.1명과 비교하면 각각 약 1.2배, 1.7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1].

한편, 20-40대 여성들 60명 중 1명은 유흥업소의 “유흥接客원”으로 취업할 만큼[2][3] 이 연령대의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아 하나의 직업군으로 간주해야 한다. 여기서 유흥업소란 어원적으로 유흥업을 경영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노는 일 또는 음식점, 술집에서 즐기면서 노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식품接客업소 등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의미한다. 유흥接客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돕는 부녀자를 일컫는다[4].

또한 국내에서는 (유사)성매매 외의 성적 서비스 판매(성산업)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이런 유흥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산업은 ‘금지’보다는 ‘관리’를 받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5]. 그러나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의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인 성접촉 행위가 없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성매매’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 취업을 하고, 종사하는 일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속에서 유흥업소를 비롯한 성판매 여성들은 존재가 부정되는 존재이며[6],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는 존재이다[7].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관련 연구나 통계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언론계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발생한 포항지역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종업원 8명의 연쇄자살사건 기사처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고정된 프레임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8].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을 단순히 신변비관에 의한 자살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어떠한 심리적·정신적 상황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이 룸살롱에서 일했다는 사실과 이들 업주의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고려해보면[9][10], 유흥업소 중 특히 룸살롱에서 일하는 여성의 상당수가 성매매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은 ‘화폐에 의한 강간’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심리적·신체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집단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관련 연구를 통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에 대해 이해해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54명의 성매매 여성 중 14.2%가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불만족, 성매매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고, 그 중 8.4%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또한 홍콩의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없고, 사회적 지원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성매매라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오명(stigma)을 많이 느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관련 국내 성매매 여성 연구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 자살 생각 빈도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13]. 또한 2011년 성매매피해 여성의 정신 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일반인보다 2배가량 많고, 이들 중 6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성적 건강과 자살시도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28%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 중에서도 룸살롱 여성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한 자

살 연구는 없었으며, 주로 전통형 성매매 여성의 자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항 유형업소 여성종업원들과 같이 롬살롱¹⁾이나 바(bar)²⁾[16-18]에서 일하는 직업형태의 여성 자살과 그 관련 요인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자살 관련 연구는 개인의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본 Durkheim(1897)의 이론을 토대로,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에 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변인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19-25].

이처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자살 연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1]. 그러나 자살은 직접적으로 묻기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이다. 이에 일련의 연구자들은 자살 생각 및 자살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써 자살을 죽음 현상이라고 보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26-30]. 이들 연구의 전제는 자살은 죽음의 한 일종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는 자살이란 '자신의 자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희생자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되는 죽음'이라고 한 E. Durkheim의 정의에 부합한다[31].

실제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살과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에 따르면, 자살에 대한 생각은 죽음에 대한 태도 중 죽음공포, 죽음생각회피,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해방인식 등의 하위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36]. 또한 최근 국내에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

행동은 '자살충동억제외지', '죽음해방인식', '죽음생각빈도',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요인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30]. 이를 통해 볼 때, 자살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심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자살을 포함한 전반적인 죽음태도의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살은 죽음에 대한 태도 외에도 자살충동억제외지라는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다. 특히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37]. 즉, 자살생각과 자살충동이 실제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통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자살충동억제외지가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살행동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 요인들과 함께 자살충동억제외지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형업소 여성종업원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20-40대 유형업소 여성종업원(롬살롱/바)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자살 관련 연구의 사회심리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자살생각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연관성을 집단별로 비교 조사하고, 이러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지역 소재 유형업소 중 롬살롱과 바(bar)에 근무하는 여성종업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를 제외한 84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자 중 롬살롱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52.4%(n=44), 바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47.6%(n=40)이었다. 유형업소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30.01±6.18세였으며, 그 중에서 20대가 63.1%(n=53), 30대가 29.8%(n=25), 40대가 7.1%(n=6)이었다. 유형업소 종사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 롬살롱: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유흥주점에 해당.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도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됨[16].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형태로써 불법으로 '2차' 행위를 알선하는 성매매 업소[17].

2) 바(bar): 식품위생법 시행령 상 일반음식점에 해당.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형태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됨[16]. 그러나 최근 '토킹 바' 혹은 '모던 바'라는 신종 술집의 형태로 카페 같은 공간에서 유흥종사자가 고정된 테이블이 없이 돌아다니며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접대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함. 이러한 바(bar) 여성종업원은 롬살롱 여성종업원과는 달리 '2차',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18].

이 40.5%(n=34),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36.9%(n=31),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 21.5%(n=18), 무응답이 1.2%(n=1)였다.

표 1.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개인적 특성

특성		인원(명)	백분율(%)
근무지 유형	룸살롱	44	52.4
	바	40	47.6
합계		84	100
연령대	20대	16	19.1
	룸살롱 30대	22	26.2
	40대	6	7.1
	20대	37	44
	바 30대	3	3.6
	40대	0	0
합계		84	1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1	25
	룸살롱 전문대학 재학/졸업	12	14.3
	4년제 재학/졸업	10	11.9
	무응답	1	1.2
바	고등학교 졸업	13	15.5
	전문대학 재학/졸업	19	22.6
	4년제 재학/졸업	8	9.5
	합계	84	100

2. 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고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T. W. Paul, G. T. Reker, and G. Gesser 의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DAP-R)[33]을 바탕으로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28]이 개발한 사생관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DAP-R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다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Meaning Management Theory에 근거하여[38], 죽음 불안(death anxiety)과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에서 비롯되는 죽음 공포(death fear)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죽음 수용은 죽음을 더 나은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Approach acceptance와 죽음을 필연적인 삶의 과정으로 보는 Neutral acceptance, 죽음을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으로 보는 Escape acceptance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38].

따라서 본 연구의 척도는 이러한 T. W. Paul, G. T. Reker, and G. Gesser[33]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이

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28]이 개발한 사생관 척도 중 죽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인식하는 ‘죽음 해방인식’,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 인식하는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보는 ‘죽음공포’,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죽음생각회피[33]’,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의지’의 총 7가지 요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에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의 각 요인별 신뢰도는 ‘죽음해방인식’이 Cronbach’s $\alpha = .942$, ‘죽음자연현상수용’이 Cronbach’s $\alpha = .847$, ‘죽음공포’가 Cronbach’s $\alpha = .869$, ‘죽음생각회피’가 Cronbach’s $\alpha = .703$,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이 Cronbach’s $\alpha = .802$, ‘죽음생각빈도’가 Cronbach’s $\alpha = .834$, ‘자살충동억제의지’가 Cronbach’s $\alpha = .692$ 였다.

전체 설문지의 내용은 해당 전문가 3명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해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신뢰성 분석, 빈도 분석, 상관 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 미만으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최근 감정 상태 비교

[표 2]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룸살롱/바)의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구체적인 자살 방법 생각 여부’, ‘자살 시도 경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우울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표 2]에 따르면 먼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56.8%(n=2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바 여성종업원은 42.5%(n=17)가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자살을 생각해 본 42명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경제적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40.0%, n=10). 그 다음으로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16.0%, n=4)', '이성과의 갈등(12.0%, n=3)', '가족과의 갈등(8.0%, n=2)' 순이었다. 바 여성종업원은 '경제적인 이유'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각 23.5%, n=4). 그 다음으로는 '이성과의 갈등(11.8%, n=2)', '친구와의 갈등(5.9%, n=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가 룬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 모두에게 자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 생각 여부'를 묻은 결과, '구체적인 자살 방법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60.0%(n=15), 바 여성종업원은 41.2%(n=7)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44.0%(n=11), 바 여성종업원은 23.5%(n=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룬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구체적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역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문항인 '자살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50.0%, n=7)'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21.4%, n=3)',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7.1%, n=1)',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7.1%, n=1)'의 순이었다. 바 여성종업원은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38.5%, n=5). 그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30.8%, n=4)',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23.1%, n=3)',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7.7%, n=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주변 사람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룬

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인원인 84명의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의 '우울 여부'에 대해 물었다.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가 40.9%(n=18), '가끔 우울한 편이었다'가 38.6%(n=17),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가 15.9%(n=7), '항상 우울했다'가 4.5%(n=2)의 응답률을 보였다.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가 32.5%(n=13), '가끔 우울한 편이었다'가 42.5%(n=17),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가 20.0%(n=8), '항상 우울했다'가 5.0%(n=2)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룬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의 우울 정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룬살롱/바)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감정 상태 단위: n(%)

		룬살롱 여성종업원	바 여성종업원
자살생각경험	있다	25(56.8)	17(42.5)
	없다	19(43.2)	23(57.5)
	합계	44(100)	40(100)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경제적 이유	10(40.0)	4(23.5)
	일/학과와 관련된 스트레스	4(16.0)	4(23.5)
	가족과의 갈등	2(8.0)	4(23.5)
	친구와의 갈등	-	1(5.9)
	이성과의 갈등	3(12.0)	2(11.8)
	기타	6(24.0)	2(11.8)
합계	25(100)	17(100)	
구체적인 자살 방법 생각	있다	15(60.0)	7(41.2)
	없다	10(40.0)	10(58.8)
	합계	25(100)	17(100)
자살 시도 경험	있다	11(44.0)	4(23.5)
	없다	14(56.0)	13(76.5)
	합계	25(100)	17(100)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1(7.1)	5(38.5)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7.1)	1(7.7)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에	7(50.0)	4(30.8)
	죽는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21.4)	3(23.1)
	기타	2(14.3)	-
	종교적 신념 때문에	-	-
합계	14(100)	13(100)	
우울 정도	대체로 우울하지 않았다	18(40.9)	13(32.5)
	가끔 우울한 편이었다	17(38.6)	17(42.5)
	자주 우울한 편이었다	7(15.9)	8(20.0)
	항상 우울했다	2(4.5)	2(5.0)
	합계	44(100)	40(100)

2.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죽음해방인식’,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 공포’,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의지’의 총 7문항으로 분류하였다.

[표 3]은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죽음해방인식’ 문항(문항 1, 2, 3)은 죽음이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인생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죽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이 문항들에 대해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 모두 죽음이 삶으로부터의 해방이나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죽음해방인식’과 동일하게 죽음의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죽음자연현상수용’과 관련된 질문(문항 4, 5, 6)에서는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의 상당수가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죽음의 부정적 의미에 의해 야기되는 ‘죽음공포’ 요인과 관련된 질문(문항 7, 8, 9, 10, 11)에서는 대부분의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죽음생각회피’ 요인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문항 12, 13, 14). 단순히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싫은지를 묻는 문항(문항 12, 13)에 대해 룸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은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게 의식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문항 14)에 대해서도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죽음에 대한 깊은 의식을 회피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에 대한 질문(문항 15, 16, 17)에서는 대다수의 룸살롱 및 바 여성종업원이 자신의 죽음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죽음생각빈도’를 묻는 질문 중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하는지(문항 18)에 대해서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그렇다’라고 한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반면,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에 대해 깊게 그리고 자주

표 3.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단위: n(%)

	근무업소			
	룸살롱		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죽음해방인식				
1. 죽는다는 것은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3.2)	3(6.8)	23(57.5)	2(5.0)
2. 죽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이다.	24(54.5)	6(13.7)	25(62.5)	3(7.5)
3. 죽음이란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27(61.4)	3(6.8)	25(62.5)	2(5.0)
죽음자연현상수용				
4.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측면이다.	5(11.4)	25(56.8)	5(12.5)	16(40.0)
5. 죽음이란 인생의 흐름의 일부이다.	3(6.8)	29(65.9)	4(10.0)	19(47.5)
6. 죽음이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삶의 한 단면이다.	2(4.5)	33(75.0)	2(5.0)	21(52.5)
죽음공포				
7.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해진다.	14(31.9)	8(18.2)	9(22.5)	5(12.5)
8.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긴장되어 기분이 안 좋아진다.	16(36.3)	8(18.2)	11(27.5)	2(5.0)
9. 나는 죽음이 두렵다.	11(25.0)	10(22.8)	12(30.0)	4(10.0)
10.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22(50.0)	3(6.8)	21(52.5)	1(2.5)
11.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22(50.0)	5(11.3)	19(47.5)	3(7.5)
죽음생각회피				
12.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다.	8(18.2)	13(29.5)	9(22.5)	10(25.0)
13. 자신의 죽음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의 하나이다.	8(18.2)	9(20.4)	8(20.0)	6(15.0)
14. 나는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의식하고 싶지 않다.	2(4.6)	15(34.1)	2(5.0)	9(22.5)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15.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다.	1(2.3)	34(77.3)	0(0)	32(80.0)
16. 만약 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다면 가족들은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0(0)	39(88.6)	0(0)	32(80.0)
17. 한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의미한다.	2(4.5)	31(70.5)	0(0)	26(65.0)
죽음생각빈도				
18.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9(20.4)	12(27.3)	6(15.0)	6(15.0)
19. 나는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꿈몽이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11(25.0)	6(13.6)	9(22.5)	3(7.5)
20. 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19(43.2)	4(9.1)	14(35.0)	6(15.0)
자살충동억제의지				
21. 앞으로 나에게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진 않겠다.	2(4.6)	27(61.4)	2(5.0)	26(65.0)
22. 나는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이 걸려도 자살은 하지 않겠다.	6(13.6)	18(40.9)	5(12.5)	16(40.0)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문항 19, 20)에서는 룬살롱과 바 여성종업원 모두 자주 생각하지도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충동억제외지'와 관련된 질문(문항 21, 22)에서는 두 집단 모두 경제적·정서적·육체적 고통이 있더라도 자살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3. 유형업소 여성종업원(룬살롱/바)의 월수입 만족도 비교

[표 4]는 유형업소 여성종업원의 월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4]에 따르면, '월수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자신의 월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13.6%(n=6),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와 '조금 만족한다'가 각각 34.1%(n=15), '매우 만족한다'가 18.2%(n=8)의 응답률을 보였다.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 '자신의 월수입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22.5%(n=9),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가 20.0%(n=8), '조금 만족한다'가 47.5%(n=19), '매우 만족한다'가 10.0%(n=4)의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룬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경제적 소득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약 48%에 달하는 여성이 월수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여성종업원은 룬살롱 여성종업원보다 약간 적은 정도인 약 43%의 여성이 월수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형업소 여성종업원(룬살롱/바)의 월수입 만족도

단위: n(%)

	룬살롱 여성종업원	바 여성종업원
월수입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22.5)
	거의 만족하지 않는다	8(20.0)
	조금 만족한다	19(47.5)
	매우 만족한다	4(10.0)
합계	44(100)	40(100)

4. 유형업소 여성종업원(룬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과 자살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표 5]는 유형업소 여성종업원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자살충동억제외지, 월수입 만족도, 우울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죽음생각회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죽음해방인식($r=-.362, p<.05$)'과 '죽음자연현상수용($r=-.322, p<.05$)' 및 '죽음생각빈도($r=-.334, p<.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바 여성종업원은 '죽음공포($r=.490, p<.05$)'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죽음공포'와 '죽음생각빈도' 간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죽음생각회피' 외에 다른 요인은 연관성이 없었다.

다음으로, '자살충동억제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죽음생각빈도($r=-.401, p<.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러한 죽음생각빈도는 '월수입 만족도($r=-.447, p<.0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월수입 만족도'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자살충동억제외지'도 약했다.

또한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울'과 '죽음생각빈도($r=.379, p<.05$)', '자살 생각 경험($r=.484, p<.01$)', '죽음해방인식($r=.327, p<.05$)' 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룬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고, 자살 생각 경험이 더 많았으며 특히 죽음 자체를 해방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룬살롱 여성종업원에서는 '월수입 만족도'가 '죽음생각빈도'와 '자살충동억제외지' 간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반면, 바 여성종업원은 '죽음공포'가 이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제어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자살충동억제지, 월수입 만족도, 우울 여부 간의 상관관계

룸살롱 여성종업원 n=44, 바 여성종업원 n=40

	죽음해방인식	죽음자연현상수용	죽음공포	죽음생각회피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죽음생각빈도	자살충동억제지	자살생각경험	월수입만족도	우울여부
죽음해방인식	룸살롱 1									
죽음자연현상수용	바	1								
죽음공포	룸살롱	.147	1							
죽음생각회피	바	-.026		1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룸살롱	.062	-.123		1					
죽음생각빈도	바	.454 [†]	-.160			1				
자살충동억제지	룸살롱	-.362 [†]	-.322 [†]	.279			1			
자살생각경험	바	-.030	.048	.490 [†]				1		
월수입만족도	룸살롱	-.098	-.051	.089	.132				1	
우울여부	바	-.382 [†]	.306	-.208	-.108					1
죽음해방인식	룸살롱	.287	.003	.372 [†]	-.334	-.020				
죽음자연현상수용	바	.550 [†]	-.109	.188	-.175	-.125				
죽음공포	룸살롱	-.070	.190	-.130	.232	.206	-.401 [†]			
죽음생각회피	바	-.575 [†]	.004	-.132	.044	.114	-.311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룸살롱	.513 [†]	.299 [†]	.199	-.176	-.049	.365 [†]	-.267		
죽음생각빈도	바	-.013	.085	-.170	-.048	-.182	-.130	-.126		
자살충동억제지	룸살롱	-.337 [†]	-.041	-.218	.156	.211	-.447 [†]	.293	-.352 [†]	
자살생각경험	바	-.227	.003	-.159	.166	.114	-.248	.168	.232	
월수입만족도	룸살롱	.327 [†]	.236	.170	-.153	-.197	.379 [†]	-.184	.484 [†]	-.285
우울여부	바	.227	-.030	-.015	-.077	-.106	.067	-.202	.441 [†]	-.017

주: [†]p<.05, ^{††}p<.01

5.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충동억제지와의 교차분석 결과

[표 6]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충동억제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충동억제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은 상관관계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 항목 4가지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요인들은 총 Likert 7점 척도로 이루어진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총점은 죽음해방인식 21점, 죽음 공포 35점,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21점, 죽음생각빈도 21점, 자살충동억제지 14점이다. 또한 빈도분석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된 '경제적 이유'를 결정짓는 요인인 '월수입 만족도'도 함께 교차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별도의 4점 척도이다. 이들 요인의 총

점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각 Low, Middle, High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과 '월수입 만족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충동억제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 역시 0.05 미만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여성의 경우는 '죽음해방인식'을 낮게 인식할수록 '자살충동억제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월수입 만족도 교차표

룸살롱 여성종업원 n=44, 바 여성종업원 n=40
단위: n(%)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지				바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지			
		Low	Middle	High	p	Low	Middle	High	p
죽음해방인식	Low	2(4.5)	7(15.9)	13(29.5)		1(2.5)	6(15.0)	16(40.0)	
	Middle	3(6.8)	5(11.4)	8(18.2)	.693	2(5.0)	5(12.5)	6(15.0)	.006 [†]
	High	0(0)	3(6.8)	3(6.8)		3(7.5)	0(0)	1(2.5)	
죽음공포	Low	2(4.5)	3(6.8)	13(29.5)		2(5.0)	6(15.0)	7(17.5)	
	Middle	3(6.8)	4(9.1)	9(20.5)	.010 [†]	1(2.5)	3(7.5)	12(30.0)	.225
	High	0(0)	8(18.2)	2(4.5)		3(7.5)	2(5.0)	4(10.0)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Low	2(4.5)	1(2.3)	1(2.3)		2(5.0)	0(0)	2(5.0)	
	Middle	2(4.5)	0(0)	0(0)	.007 [†]	1(2.5)	1(2.5)	2(5.0)	.233
	High	1(2.3)	14(31.8)	20(45.5)		3(7.5)	10(25.0)	19(47.5)	
죽음생각빈도	Low	1(2.3)	1(2.3)	10(22.7)		0(0)	3(7.5)	5(12.5)	
	Middle	1(2.3)	4(9.1)	10(22.7)	.019 [†]	3(7.5)	5(12.5)	14(35.0)	.415
	High	3(6.8)	10(22.7)	4(9.1)		3(7.5)	3(7.5)	4(10.0)	
월수입만족도	Low	1(2.3)	3(6.8)	2(4.5)		2(5.0)	5(12.5)	2(5.0)	
	Middle	3(6.8)	8(18.2)	4(9.1)	.026 [†]	1(2.5)	0(0)	7(17.5)	.077
	High	1(2.3)	4(9.1)	18(40.9)		3(7.5)	6(15.0)	14(35.0)	

주: [†]p<.05, ^{††}p<.01

6.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룸살롱/바)의 자살충동억제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은 자살충동억제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살충동억제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입력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7]에 따르면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beta=.286, t=2.036, p=.049$)' 요인과 '월수입 만족도($\beta=.318, t=2.173, p=.036$)' 요인이 '자살충동억제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룸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수입 만족도'였으며, 그 다음이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죽음해방인식($\beta = -.520, t = -2.746, p = .009$)’ 요인만이 ‘자살충동억제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롬살롱 여성종업원의 ‘죽음해방인식’ 요인은 영차상관에서는 -였지만, 다중회귀분석에서 서프레션 효과에 의해 +가 되었으므로 이 값은 해석하지 않는다[39]. 또한, 본 회귀모델의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자살충동억제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롬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26.5%, 바 여성종업원의 경우 24.2%로 나타났다.

표 7.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롬살롱/바)의 자살충동억제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살충동억제지				
	B	β	t	R ²	F
죽음해방인식	.042	.044	.311		
롬살롱				.265	3.514*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315	.286	2.036*		
월수입 만족도	.306	.318	2.173*		
죽음공포	-.148	-.167	-1.192		
죽음해방인식	-.572	-.520	-2.746†		
바				.242	2.790*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	-.033	-.029	-.167		
월수입 만족도	.110	.123	.805		
죽음공포	.182	.187	1.130		

주: * $p < .05$, † $p < .01$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 중에서도 특히 롬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후,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자살충동억제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첫째, 롬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은 바 여성종업원 보다는 약 2배가량 많았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한 생각’도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약 1.5배가량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롬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보다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살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는 본 연구의 상관관계에서 롬살롱 여성종업원이 바 여성종업원과는 달리 ‘죽음해방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생각회피’가 낮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고 수용할수록 자신으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37]. 또한 인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자살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한다[28]. 따라서 롬살롱 여성종업원이 현실에 대한 탈출의 수단으로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며 자살충동억제지지가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관분석에 따르면 롬살롱 여성종업원은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고, 자살 생각 경험이 많았으며, 죽음 자체를 해방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대부분의 자살연구[34-36][40]에 근거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즉, 우울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지고[40], 죽음은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34-36]이라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며, 자살충동억제지 또한 약해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자살 시도와 자살 계획이 바 여성종업원보다 롬살롱 여성종업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롬살롱 여성종업원이 보여준 우울, 자살생각, 죽음생각빈도, 그리고 죽음해방인식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롬살롱 여성종업원의 ‘죽음해방인식’이 직접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어 선택적 고립과 같은 ‘우울 행위’를 유발하고, 이런 ‘우울 행위’가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울 여부’가 ‘죽음생각빈도’, ‘자살생각경험’ 그리고 특히나 ‘죽음해방인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우울 여부는 자살 관련 연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우울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살을 시도하며, 자살만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41]. 그러나 오진탁의 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죽음을 해방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자각이 전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42].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대책

으로 죽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살자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자살한 이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자신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43]. 따라서 립살롱 여성종업원처럼 잘못된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결론적으로 자살을 미화시키고 자살충동억제지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에 따르면 립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바 여성종업원과 달리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충동억제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립살롱 여성들이 설문지의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의 응답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가 있다. 직업적 요구가 더 강요되는 립살롱 여성종업원이 더 강한 개인적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가까운 지인이 받을 고통을 더 크게 생각하는 타인 배려적 성향을 보였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포항 유흥업소 여성종업원들이 립살롱에서 일하면서 업주의 성매매 알선을 받은 것과 관련된 신문보도와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에서 연간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 이상이 립살롱 등의 유흥업소를 통해 오고간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44], 성매매를 하는 직업군인 립살롱 여성종업원에게는 사회 문화적 평가와 소외의 결과로 낙인이론[45]에 의한 스티그마[12][46]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립살롱 여성종업원이 '자살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시도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고통 때문'으로 두는 것은 본인들의 자살로 인해 사회적 낙인 집단인 성매매 직업군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을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맺는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생애의 전 단계, 그리고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가족 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가 감정교환은 자살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는 확률이 줄어들고, 동시에 지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가족 지지가 높은 것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47]. 또한 개인이 위치해있고 사회적으로 맺은 관계가 친밀성, 애착, 정체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면 자살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48]. 실제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 생각 및 자살 충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9].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바와 달리 립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월수입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자살충동억제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립살롱 여성종업원의 자살충동억제지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립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이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크다. 여성들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2차'가 가능한 립살롱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차'에서의 수입은 혼자서 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산업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성산업의 '서비스업화'에 따라 여성들은 손님의 감정 상태에 적절히 반응해 상호작용할 것을 요구받았으며[50], 인간 본연의 속성인 '감정'을 교환가치로 추상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특별한 유형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51].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무엇으로 대표되며, 이는 자존감과 직결된다. 즉, 여성의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자존감을 매매한다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립살롱 여성종업원이 자신의 감정과 성적 자존감(sexual self-esteem)을 판매하면서까지 이 직업을 선택했을 경우,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바에 종사하는 여성종업원보다 크기에 월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월수입 만족도가 낮다면 상대적 박탈감[52]이 커져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립살롱 여성종업원과 유사집단인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선불금, 빚 독촉'과 같은 요인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53].

이처럼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이소정[22]은 소득불평등이 개인의 자살이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연결되는 시점인 경제적 스트레스에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크게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관적 차원의 스트레스는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과 연관될 수 있다[54]. 그리고 이는 경제적 궁핍, 경제적 부담, 경제적 압박 등으로 연결되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자살의 이전 단계인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55]. 따라서 ‘월수입 만족도’라는 변수가 성매매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어 자살충동억제인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바 여성종업원과 달리 롭살롱 여성종업원의 ‘월수입 만족도’는 ‘자살충동억제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살 관련 연구들은 ‘자살원인은 우울증’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적 체계를 죽음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봤을 때, ‘우울’과 ‘자살’이라는 공간 사이에 단순히 ‘우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죽음에 대한 태도’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할 때, 기존의 연구처럼 ‘우울여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소재 유흥업소(롭살롱/바) 여성종업원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 생각 및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롭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월수입 만족도’가 높고,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주는 충격’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죽음생각빈도’가 낮아지며 ‘자살충동억제인지’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롭살롱 여성종업원과 바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충동억제인지’에 ‘죽음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자살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자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법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후, 죽음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갖게 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고,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롭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는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우울할수록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였으며 죽음 자체를 해방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울하거나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자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검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롭살롱 여성종업원의 경우 더 나은 수입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성적 자존감’을 매매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월수입이 자살충동억제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바 여성종업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원은 ‘탈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56], 계속적으로 이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은 지원에서 배제시킨다. 따라서 이들이 왜 이러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자살 연구는 설문지 문항 중에서 응답자의 자살 시도와 자살 생각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응답자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외상 후 장애나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으며[57][58], 자살에 대해 언급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관심을 두게 만드는 딜레마를 낳는

다[59]. 따라서 보다 많은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면 직접적으로 자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죽음에 대한 태도 설문지만으로도 응답자의 자살 생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홍업소 여성종업원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매매 처벌법'의 시행 이후 합법적 태두리 안에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훨씬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터부시되는 일종의 소외계층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체 유홍업소 여성종업원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유홍업소 여성종업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특정 지구 내의 유홍업소 종사자로 한정하였기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유홍업소 여성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살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 통계, <http://kostat.go.kr>
- [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http://nts.go.kr>
- [3] 문영재, “유홍접객원 14만명.. 여성제활동인구 60명 중 1명꼴,”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51&newsid=02696166596114440&DCD=A00105&OutLnkChk=Y>
- [4] 이인숙, 종업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유홍업소 종업원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5] 변혜정, “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25권, 제3호, pp.109-149, 2009.
- [6] 홍지아, “미디어를 통한 성매매의 의미구성: 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1권, 제3호, pp.219-259, 2015.
- [7] 원미혜, “여성의 성 위계와 ‘창녀’낙인,” 아시아여

성연구, 제50권, 제2호, pp.45-84, 2001.

- [8] 장숙경, 여성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 연구 - 포항시 사례를 중심으로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9] 디지털뉴스팀, “포항 괴담 확산...유홍업소 여성종업원들 자살 이어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31230071&code=940202
- [10] 박주희, “유홍주점 여성 1년 새 8명 자살에도 “성매매무관” ‘포항괴담’ 덮기 바쁜 경찰 왜?,”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86711.html>
- [11] Y. Hong, X. Li, X. Fang, and R. Zhao,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mong female sex workers in chin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Vol.28, No.5, pp.490-505, 2007.
- [12] D. C. Ling, E. A. Holroyd, W. C. Wong, and S. A. Gray, “Handling emerging health needs among a migrant population-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e ideation among female street sex workers in Hong Kong,” Clinical Effectiveness Nursing, Vol.8, No.3, pp.205-214, 2004.
- [13] 장승진, 성매매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 지원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 [15] Minsoo Jung, “Associations of physical and sexual health with suicide attempts among female sex workers in south korea,” Sexuality and Disability, Vol.31, No.3, pp.275-286, 2013.
-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959&efYd=20160804#0000>
- [17] 한상철, “풍속영업 종사 여성의 성매매 유입과 중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2권, 제2호, pp.15-30, 2012.
- [18] 이연섭, “토크바,” <http://www.kyeonggi.com/ne>

- ws/articleView.html?idxno=565485
- [19] 김형수, “연구논문: 한국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59-172, 2002.
- [20] 은기수,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2호, pp.97-129, 2005.
- [21] 최인, 김영숙, 서경현,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제25권, pp.33-56, 2009
- [22] 이소정, “노인 자살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1-19, 2010.
- [23] 모지환, 배진희, “자살행동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2호, pp.121-145, 2011.
- [24] 남영옥,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1호, pp.283-304, 2013.
- [25] 심혜선, 김지현, “여성의 수치심, 자기용서와 자살생각 - 자기용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제34권, 제1호, pp.159-179, 2013.
- [26] I. Orbach, S. Feshbach, G. Carlson, H. Glauman, and Y. Gross, “Attraction and repulsion by life and death in suicidal and in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1, No.5, pp.661-670, 1983.
- [27] I. Orbach, S. Feshbach, G. Carlson, and E. Leah, “Attitude toward life and death in suicidal, normal, and chronically ill children: An extended repl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2, No.6, pp.1020-1027, 1984.
- [28]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사생관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0권, 제1호, pp.31-82, 2004.
- [29] 이누미야 요시유키, “청년기의 생명윤리와 사생관: 자살, 임신중절 및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1호, pp.85-108, 2005.
- [30] 이수현, 최은혜라, 김성수,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공감능력이 자살충동억제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06-218, 2012.
- [31] E. Durkheim, 황보중우(역),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경기도: 청아출판사, 1897.
- [32] J. D. Minton and L. R. Bruch, “The correlations of attitudes towards suicide with death anxiety, religiosity and personal closeness to suicide,” *Omega-Journal of Death Dying*, Vol.11, No.4, pp.317-324, 1980.
- [33] T. W. Paul, G. T. Reker, and G. Gesser,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 toward death*,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NY: Taylor & Francis, pp.121-148, 1994.
- [34] A. A. Leenaars, “Suicide: a multidimensional malais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26, No.3, pp.221-236, 1996.
- [35] R. R. Holden, P. S. Kerr, J. D. Mendonca, and V. R. Velamoor, “Are some motives more linked to suicide proneness than oth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54, No.5, pp.569-576, 1998.
- [36] I. Orbach, M. Mikulincer, E. Gilboa-Schechtman, and P. Sirota, “Mental pain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ity and life mea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33, No.3, pp.231-241, 2003.
- [37] R. F. Baumeister,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Vol.97, No.1, pp.90-113, 1990.
- [38] P. T. Wong, *Meaning management theory and death acceptance*, *Existential and Spiritual Issues in Death Attitudes*, FL: CRC Press, pp.65-87, 2008.
- [39] J. Cohen,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pp.75-79, 2003.
- [40] J. S. Westefeld and S. R. Furr, “Suicide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18, pp.119-123, 1987.

[41] M. J. Goldblatt, E. Ronningstam, M. Schechter, B. Herbstman, and J. T. Maltzberger, "Suicide as escape from psychotic panic,"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Vol.80, No.2, pp.131-145, 2016.

[42] 오진탁, "자살자의 죽음이해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42권, pp.335-354, 2014.

[43] 오진탁, *자살예방 해법은 있다*, 서울: 교보문고, 2013.

[44] 여성가족부,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e.jsp?func=view¤tPage=2&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1503

[45] H. S. Becker, *Labeling theory reconsidered. Devia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Tavistock, pp.41-66, 1974.

[46] E. Goffma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Hall, 1963.

[47]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pp.61-84, 2010.

[48] R. Eckersley and K. Dear, "Cultural correlates of youth suicide," *Social Science & Medicine*, Vol.55, No.11, pp.1891-1904, 2002.

[49] Y. Joo and S. Roh,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 rural population," *Environmental health and toxicology*, Vol.31, 2016.

[50] 류숙진, *대인 서비스 직종의 감정노동 관리와 노동자 반응-패스트푸드점, 보험사, 콜센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51] 김왕배, 이경용, 이가람, "감정노동자의 직무환경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제46권, 제2호, pp.123-149, 2012.

[52] R.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 No.5, pp.672-682, 1938.

[53] 김자영,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여성과 인권, 제6권, pp.136-152, 2011.

[54] S. J. Price, C. A. Price, and P. C. McKenry, *Families &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Sage, 2010.

[55] 최정민, 김신열,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43-758, 2014.

[56] 박순주, "성매매 여성의 '노동'경험 인식과 그 맥락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제41권, pp.7-53, 2013.

[57] 강이영, "자살위기의 이해와 대처," *생명연구*, 제18권, pp.305-323, 2010.

[58]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 학교 장면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59] 김준홍, 정영일, "한국인의 자살시도의 위험요인: 자살관과 사생관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09-123, 2011.

저 자 소 개

김 유 리(Yoo-Ri Kim)

준희원



- 2009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이학사)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수료

<관심분야> : 의료커뮤니케이션, 공감, 자살, 사회심리학, 심리신경면역학

한 흥 식(Heung-Sik Han)

정희원



- 1977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
- 1989년 :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철학

제 민 지(Min-Ji Je)

정회원



- 2006년 2월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공학사)
- 201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의학석사)
- 2013년 9월 ~ 현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인문사회의학

전공 박사수료

<관심분야> : 의료커뮤니케이션, 공감, 사회심리학, 심리신경면역학

김 성 수(Sung-Soo Kim)

정회원



- 1986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89년 :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사회심리(석사)
- 2000년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의료사회학(박사)

▪ 현재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고실 주임교수

▪ 현재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커뮤니케이션센터장

<관심분야> : 의료커뮤니케이션, 환자만족도, 공감, 신경심리면역학, 보건교육

천 경 주(Kyung-Ju Chun)

정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 석사(전기화학 & 바이오센서 전공)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인문사회의학전공 박사수료

<관심분야> : 공감 커뮤니케이션, 공감교육 프로그램, 사회심리, 사회신경과학, 양자 생물학

장 철 훈(Chulhun L. Chang)

정회원



- 1986년 2월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의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관심분야> : 체외진단키트 개발, 의학 교육